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 빛나는 사회주의 조선은 천만년 높이 모실 영원한 어버이

위대한 당의 평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 4월이 왔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과 환희의 4월인가.

주체의 어진이 친란히 솟아오른 뜻깊은 달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류의 가슴가슴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흠토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다. 우리 민족의 어버이 이십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 짐장의 미래를 위해 바치신 고귀한 활동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숭결, 체워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 짐장의 웨침이 4월의 하늘가에 끌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천만전사, 제자들에게 래일에 대한 희망과 학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강성대국건설 위업에도 힘 있게 밀어 주는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미소!

세월이 흘러수록 우리 수령님을 더더욱 잊지 못해하는 군대에 중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오늘호 당보에는 절세위인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태양의 블빛이 이 땅을 밝게 비치는 4월의 이 아침 당보지면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은 이런 때의 격정을 한껏 터쳤다.

수령님! 수령님의 해빛 같은 미소는 강성대국의 친란한 미래를 불러온다.

진정 원대한 포부와 광만으로 가득 찬 이 아침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삼아 우러를수록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꽂찌우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이의 고결한 생애가 우리의 가슴속에 추억의 파도를 몰아온다.

후대들은 계급의 끓이고 민족의 끓이며 인류의 끓이다. 후대들은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조국의 미래, 혁명의 장래가 결정된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 가운데에서도 가장 숭고하고 현신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치지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미소는 이 땅에 펼쳐진 인간사랑의 짐장,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창조되고 활짝 펼쳐나는 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참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불멸의 화폭이다.

무릇 세상에 이를 낸 위인들이 치고 후대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그 렇듯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치시 었으며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시고 어 무해 주신 자에로운 어버이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수령님의 환생, 그것은 정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생 이었고 우리 후대들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바치신 고귀한 활동이었다.

우리의 뇌리와 심장에 뜨겁게 안겨든다.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유격근지에 아동단학교를 세워주시고 사파 몇몇 생겨도 조선을 알라고 그것을 아동 단원들에게 먼저 보내 주신 고결한 뜻.

눈보라치는 백두광야의 성 액진 귀틀집에서 아이들이 추위에 멀고 있는데 내가 백장의 모포를 덮고 찬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는가하고 하시며 한장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를 아동 단원들에 계 덮어 주시던 조두산위인의 숭엄한 모습, 조국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부모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최고사령부에서 물소 고아들을 키우시고 학원도 세우도록 해주신 친부모의 다심한 그 은정, 인민들이 삼가울린 귀중한 보약까지도 후대들에게 아낌없이 끌려주신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후대들에게 대한 사랑을 미덕 중의 미덕으로 여기고 어린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혁명의 새 대로 키워오신 인민의 친어버이이시였다.

불멸의 화폭을 실상에 새기고 새길수록 인민을 위해 걸고걸으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희생과 현신의 길이 뜨겁게 어려와 눈시울이 젖어든다.



어린이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언제나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

하늘같은 그 사랑속에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터전들이 이르

는 곳마다에 굳건히 다져지고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진진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무렵의 어느날 황해남도 파일군과 수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파일이 무르익은 야산에서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가 넘쳐흐르며 간직하신 어민위원의 리념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여 별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강성대국으로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릴 것이다

주체공업의 발전력사에 빛나는 불멸의 령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 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쟁탈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체공업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며 강성대국의 명미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선군으로 존엄높은 내 조국땅에 대규모의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 생상기지들 일떠서고 당시의 크나큰 윤정술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경공업공장들이 생산활성화의 동력을 높여 올려가고있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 기운차게 용을 쓰며 질풍같이 내달리고 날마다 눈부신 건설성과들이 이룩되는 속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그 어떤 경제파동에도 끄떡없는 주체공업의 막강한 위력을 느낄 때마다 자립적인

족경제의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가슴뜨겁게 인계온다.

모든것이 어려웠던 건국의 초행길에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자립적인 공업건설의 새 세상을 헤쳐나가니 다른 없던 이 땅을 전설속의 천리마가 나래치는 사회주의공업 대들보를 꾸건히 일으켜세우시였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찌기 항일대전의 나날

장차에 해 봤던 조국에

참다운 민족산업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기틀 시기에 벌써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시며 자립경제의 주체들을 하나하나 높이 올려가고있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 기운차게 용을

쓰며 질풍같이 내달리고 날마다 눈부신 건설성과들이

이루되는 속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아직은 너무도 청소한 우리의 공업이 미세기 일으킨 전쟁으로 새더미속에 파묻히고 모든것을 또다시 봄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던 전후의 그간고한 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에 있고 인민이 있는 한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강위력한 자립경제를 일떠세울수 있음을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전체 인민을 복구건설으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론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며 주체공업의 대들보를 꾸건히 일으켜세우시였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찌기 항일대전의 나날

장차에 해 봤던 조국에

참다운 민족산업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기틀 시기에 벌써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시며 자립

경제의 주체들을 하나하나 높이 올려가고있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 기운차게 용을

쓰며 질풍같이 내달리고 날마다 눈부신 건설성과들이

이루되는 속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아직은 너무도 청소한 우리의

공업이 미세기 일으킨 전쟁으로 새더미속에 파묻히고 모든것을 또다시 봄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던 전후의 그간고한 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에 있고 인민이 있는 한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강위력한 자립경제를 일떠세울수 있음을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와 발전기, 대형산소분리기와 선박, 전기기관차와 각종 공작기계, 정밀기계들을 마음은 대로 척척 만들어 내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희고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공업은 비약의 한걸음을 줄기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혼원을 찬란한 현실로 꽂피워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해안의

여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공업은 역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밟았고 새 세기의 평마루에 우뚝 올라섰다.

전국도처에 태천발전소와 삼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을 가슴뿌듯이 절감하고 있으며

커다란 신심과 포부에 넘쳐

주체공업의 천리해안의

을 꾸려온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욱 빛나가시는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룡성번영의 천연한 새 아침을

마련해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금지 못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

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

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은 결과

해마다 우리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서나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블멸의 농촌

건설업적을 빛내이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경공업공장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주체철과 비닐론, 주체비료가 쏟아지고있다.

정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희고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공업은 막강한 위력을 떨치며 활기로 넘쳐 전진하게 되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혼원을 찬란한 현실로 꽂피워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해안의

여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공업은 역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밟았고 새 세기의

평마루에 우뚝 올라섰다.

전국도처에 태천발전소와 삼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을 가슴뿌듯이 절감하고 있으며

커다란 신심과 포부에 넘쳐

주체공업의 천리해안의

을 꾸려온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욱 빛나가시는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룡성번영의 천연한 새 아침을

마련해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금지 못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

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

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은 결과

해마다 우리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서나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블멸의 농촌

건설업적을 빛내이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숭고한 뜻 꽂펴나는 협동별

4월의 봄을 맞이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뜻깊게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이 제일이다.

정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희고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공업은 막강한 위력을 떨치며 활기로 넘쳐 전진하게 되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혼원을 찬란한 현실로 꽂피워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해안의

여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공업은 역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밟았고 새 세기의

평마루에 우뚝 올라섰다.

전국도처에 태천발전소와 삼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을 가슴뿌듯이 절감하고 있으며

커다란 신심과 포부에 넘쳐

주체공업의 천리해안의

을 꾸려온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욱 빛나가시는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룡성번영의 천연한 새 아침을

마련해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금지 못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

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

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은 결과

해마다 우리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서나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블멸의 농촌

건설업적을 빛내이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

롯한 본보기 단위들을 놓고보자.

농장별을 찾고 또 찾으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

여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대로 지대적 특성에 맞는 작물과 풍물을 배

치하고 그 비법기술을 과학기술

적으로 활용해 농사에서

상국의 앞장에 선 미곡리사람들

에게서 그에 맞는 협동별 특성에

맞으면서도 수확하고 높은 종

종으로 재배되며 알곡생산을

늘려나고 있다. 특히 협동별

은 풍물과 함께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해 농사에서

농사를 짚고 있다. 협동별은

농업근로자들이

속성화해 배수를 높여 농

작을 재배하는 협동별은

농업생산을 확장해 농

작을 재배하는 협동별은

농업생산을 확장해

겨레의 심장 속에 간직된 태양의 미소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신 어버이 수령님을 우러러 헤치는 남녀계의 다 합 없는 흠모와 정승의 목소리들이 창공높이 메어리치고 있다.

«영생하시라!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이시여, 민족재생의 은인, 민중복락의 창조자, 겨레사랑의 회신, 민족존엄의 수호신 김일성주석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겨레의 영원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은 오늘도 빼일도 걸이길이 우리 민중과 더불어 영생하실걸입니다.»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남녀계의 이 뜻거울 진실의 분출, 그것은 가장 진실하고 강렬한 위인경모심의 토로이다.

어찌하여 오늘 우리 겨레는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 수령님을 더욱 못 견디며 그리워하며 그이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밟았고 따르는것인가.

위인에 대한 배후과 흠모의 열도는 그가 살아온 공적과 위훈의 높이에 비례했다.

주체의 광활로운 빛발로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가장 숨비른 통일의 길로 우리 겨레를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뜨거운 민족애와 한없는 인

으로 우리 겨레를 한풀에 안

아주고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이

은 조국강토에 그처럼 강렬한

힘을 암아온것임을

본사기자 김향미

우리는 한 남녘동포의 수필에 서도 가슴험계 느끼게 된다.

…나에게는 우리 겨레와 세계 전보적인 중들이 태양상이라고 경청하는 경에 하는

그리고 경청하는 경에 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사진을

보쳐럼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나는 늘 이 태양상을 가슴속에 품고 산다.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

해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님의 미소는 온 우주에

넘쳐 나는 태양의 미소이다.

그 미소에 주석님께서

80여성상 한평생을 깊고 기울

이시여 이룩하신 민족의 혁명과

우수한 김일성주석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겨레의 영원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은 오늘도 빼일도

걸이길이 우리 민중과 더불어

영생하실걸입니다.»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남녀계의 이 뜻거울 진실의

분출, 그것은 가장 진실하고 강

렬한 위인경모심의 토로이다.

어찌하여 오늘 우리 겨레는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 수령님을 더욱 못 견디며 그리워하며

그이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밟았고 따르는것인가.

위인에 대한 배후과 흠모의

열도는 그가 살아온 공적과

위훈의 높이에 비례했다.

주체의 광활로운 빛발로 민

족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가장

숨비른 통일의 길로 우리 겨레

를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뜨거운 민족애와 한없는 인

으로 우리 겨레를 한풀에 안

아주고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이

은 조국강토에 그처럼 강렬한

힘을 암아온것임을

본사기자 김향미

재해를 가시기 위한 총력의 활동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해일로 재일동포사회가 일은 피해는 참으로 크다. 총력난하 기관들과 학교들이 심히 파괴되고 수많은 동포가정들이 막대한 가산손실을 당하였다. 전력과 물공급단절, 식량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해역지역 동포들은 재난에 처해져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유체적 고통은 국도에 달하고 있다. 특히 늙은 이들의 전경이 심히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폐해지역 동포들은 결코 미판하지 않고 있다. 뜨거운 물과 더불어 우수하고 교육원들, 해군원들과 함께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재난에 대처해온 청년들은 그들의 정신유체적 고통은 국도에 달하고 있다. 특히 늙은 이들의 전경이 심히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폐해지역 동포들은 결코 미판하지 않고 있다. 뜨거운 물과 더불어 우수하고 교육원들, 해군원들과 함께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재난에 대처해온 청년들은 그들의 정신유체적 고통은 국도에 달하고 있다. 특히 늙은 이들의 전경이 심히 악화되고 있다.

재해가 일어난 직후 총력증양상이 위원회는 즉시 긴급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동포들의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구호대와 의료진을 현지로 긴급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위험지역인 센세키와 세노보구역에 까지도 차기 구호구호대는 우리 동포들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회생적인 구호활동을 벌리고 있다. 각종 약품들을 가지고 현지에 도착한 총련의료일군들을 구호대에 차운다. 차운다. 차운다.

남조선은 『현안』 호침물사건 1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당국의 사건조사결과가 조작된것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들이 이 렇게 나오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전『민군동조사단』 민간조사 위원회였던 신상철이 월전에 공개한 『1번』 어뢰추진체에 발전된 해양생물체(감자류)의 사진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은 험선침몰사건 후 『북어퇴공격설』의 『결정적증거물』로 합선침몰수역에 서 어느 한 민간조선에 건졌다는 『1번』 어뢰추진체라는 것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그 어뢰추진체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선서해에는 없고 조선동해에서 서식하는 작은 생물체가 발견된것이다. 신상철은 어뢰추진체에 붙어있는 그 생물체의 사진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천안』 호사건과 관련한 공판에 공개 하려 했다. 그러나 사건이 되는 것과 판관하여 남조선당국과 보수언론들이 또다시 터무니없는 『북어퇴공격설』을 내둘리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사진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상철은 지난 3월 23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그 사진을 내놓으면서 『조선동해에서 서만 살고 있는 『붉은명계』가 어뢰추진체에 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어뢰추진체가 『천안』 호침물원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라고 폭로하였다.

이날 공개된 3장의 사진들은 『1번』 어뢰추진체를 지난해

남조선에서 『제보증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이 『색갈론』을 또다시 들고나오면서

여전히 방송과 방송으로 여전히 전시회장을

제작된 『제보증선거』에

이루어져 있다.

우희로가 개최되었다.

잇달으는 여진과 방송으로 여전히 전시회장을

제작된 『제보증선거』에

이루어져 있다.

우희로가 개최되었다.

우

